

국내 토종가축 현황과 국제기구 등재

□ 국내 토종가축 현황

귀중한 우리 토종자원이 지금 이 시간 어느 곳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악성질병이나 개량종에 밀려 원형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어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오늘날 우리의 식단에 오르는 동물성 단백질의 근본인 가축 종자의 대부분은 외국산이다. 닭고기, 돼지고기가 그렇고, 일부 소고기도 그렇다. 최근 일부 토종닭 종자와 재래돼지의 복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연간 수천 마리의 종자를 외국에서 돈(로얄티)을 주고 사 오고 있다. 수 세기를 거치는 동안 우리 기후풍토에 토착화되었지만, 대표적인 젖소품종인 홀스타인은 원래 우리나라 종자는 아니다. 그 자체가 외국종이다. 다행히 한우는 수천년 우리민족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토종이며, 털색이 호반으로 줄무늬가 있는 최소 또한 우리 고유의 토종 한우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우리고유의 재래가축은 경제성과 산업화를 앞세운 개량종에 밀려 설 자리를 내 주게 되었다.

토종 재래가축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은 비록 그 근원은 외국에서 유래되어 왔을 수도 있으나,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동안 기후 및 풍토에 맞게 적응되어 자연 선발되어온 가축을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위기이다.

국내의 경우 토종닭 사육 및 인증기준 설정연구(2008년, 축산원)에 따르면, 토종닭 순계의 정의를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육되어 온 닭으로 근래에 다른 품종과 섞임이 없이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온 재래종 품종 또는 내종으로 사육유래가 명확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외국 유래종으로 국내에 순계로 도입하여 최소 7세대이상 계대유지에 의하여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완전 적응된 토착종으로 도입경위가 명확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의 품종분류기준 중 지역적응품종(Locally Adopted)은 외래종 도입후 40년이 경과하고 6세대가 지나면 토착종으로 인정한다는 분위기 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보면 우리나라 토종닭은 오래전에 한반도로 들어와 지역간 폐쇄와 기후풍토 및 자연조건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토착화되면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과 도시화 영향으로 지역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순수 원형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되었으며, 비교우위에 있는 개량종에 밀려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현재 일부 농가에서 보존하고 있는 토종 재래가축은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민간차원의 노력의 한계와 경제적인 부담이 농가차원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 까지 들어진다. 이들 농가들은 우리나라 전통 토종닭을 복원하여 보존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현지보존하고는 있으나, 지속적인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외래종과 경쟁을 해야 하는 등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순종과 개량종과의 비교 우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도입종과의 교배에 의하여 그 순수성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민간차원에서 순수 토종닭을 보존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1960~70년대 우리 고향마당 한 권에서 한가롭게 노닐던 지역의 순수 토종닭을 보존, 복원하기 위해 청춘을 바친 분들이다. 20~30년 전부터, 이들은 그 토종닭을 찾기 위해 문화적으로 격리된 전국의 심신산천을 찾아다녀 수집한 결과, 조선시대 정선의 계군만추도에 나오는 흑갈색 재래닭을 30년을 걸쳐 복원했다고 자부한 강원도 횡성 김찬호 씨(79), 우리나라 긴꼬리닭을 복원 하고 있는 재래닭 애호가 일산의 이희훈(70)씨, 동의보감 본초강목에 나오는 조선 중부지방의 닭을 복원하였다고 자신하고 있는 파주 홍승갑씨(76) 등이다.

이들은 고 문헌과 그림에 나오는 닭에 대한 외모적인 특징과 전통지식을 바탕으로 순수에 가까운 토종닭들을 수집하였고, 복원하기 위해 계대를 이어 교배하고, 선발, 도태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청춘을 다 바친 우리나라 토종닭 보존의 산 증인들이다.

□ 국내가축 국제기구 등재

가축유전자원다양성정보시스템(DAD-IS, <http://dad.fao.org/>)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해 1990년대에 구축되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품종수준에서의 현황 파악 및 관리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각 국가에서 동물 유전자원 관리를 대표하는 국가조정관(national coordinator)만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 국가조정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가축유전자원의 국제기구(DAD-IS) 등재 시에 주요 입력사항은 품종명, 외형적 특성, 기원 및 분포상태, 이용분야, 집단구조, 번식방법, 보존프로그램 등이다. 전 세계 품종 등재현황은 198개국으로부터 38개 축종을 대상으로 14천여 품종이 등재되어 있다. 대륙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럽에서 가장 많은 품종이 등재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아프리카 순이다. 또한 축종별 현황을 보면 소 품종이 3,078개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양, 닭, 말, 돼지, 염소 순으로 품종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가장 많은 품종을 등재한 국가는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순이며, 특히 중국은 아시아 전체 품종 중에서

2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의 국제기구(DAD-IS) 등재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2년 5월 칩소(Chikso), 축진참돈(Chookjin Chamdon), 긴꼬리닭(Ginkkoridak), 진돗개(Jindo) 등 6축종 24품종을 신규 등재하였고,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품종들을 포함하면 총 등재품종은 14축종 76품종이다.

농업유전자원, 특히 가축유전자원의 가치는 국제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유전자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류공동유산에서 보유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각국은 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지속 가능한 활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다른 국가의 자원을 이용하여 개량품종을 개발하고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 혹은 종축회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반면 자원보유국은 자원에 대한 권리주장은 고사하고 자원에서 발생한 수익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자원보유국들은 보유자원에 대한 권리와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동분배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는 자원에 대한 무상접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원빈국이며 이용국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자원전쟁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축유전자원의 수집, 보존, 평가 및 활용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특히 자원 수집의 범위를 국내에서 국외로 넓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국내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제적인 협력 및 공동연구를 통한 자원수집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유자원에 대한 목록화, 특성평가 및 정보화를 조기에 완료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유전자원에 대한 특성분석을 실시하여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맺는말

국제간 자원 경쟁시대, 자원의 공유와 이용에 있어서는 더 이상 공짜가 없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 토종가축 자원의 확보와 보존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일들은 단지 몇몇 연구자나 국가기관의 노력만으로 가능할 수 없다. 토종가축 자원의 보존, 복원방법이 갱신, 번식, 보존 등 다른 품종과 달라 쉽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토종자원의 활용 및 가치는 당장의 성과나 새로운 자원의 작출은 아니더라도 후일 우리의 후손들이 가치를 창출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바탕을 다져 놓은 것 또한 중요한 우리의 몫일 것이다.

<참고자료>

국제기구(FAO, DAD-IS)에 추가 등재된 우리나라 재래가축 현황(2012.05.30.)

소	 침소 - 추가 (Chikso)	 흑우 - 추가 (Heugu)	 한우 - 수정 (Hanwoo)	 제주흑우 - 수정 (Jeju Black Cattle)	 홀스타인 - 수정 (Korean Holstein)
닭	 재래백색 - 추가 (Baeksaek Jaerae-jong)	 재래회갈색 - 추가 (Hwaegalsaek Jaerae-jong)	 재래흑색 - 추가 (Heuksaek Jaerae-jong)	 코니쉬갈색 - 추가 (Korean brown cornish)	 코니쉬흑색 - 추가 (Korean black cornish)
	 긴꼬리닭 - 추가 (Ginkkoridak)	 횡성약닭 - 추가 (Hoengseong yakdak)	 현인흑계 - 추가 (Hyunin black)	 제주닭 - 추가 (Jeju native fowl)	 황봉 - 추가 (Hwangbong)
	 재래적갈색-수정 (Hwanggalsaek Jaerae-jong)	 재래황갈색-수정 (Hwanggalsaek Jaerae-jong)	 오계-수정 (Yeonsan Ogye)	 로드-수정 (Korean rhode island red)	 레그혼 -수정 (Korean white leghorn)
염소	 당진 - 추가 (Dangin Yeomso)	 장수 - 추가 (Jansu Yeomso)	 통영 - 추가 (Tongyeong Yeomso)	 염소 - 수정 (Yeomso)	 제주재래돼지-추가 (Jeju Native Pig)
돼지	 축진참돈 - 추가 (Chookjin Chamdon)	 축진듀록 - 추가 (Chookjin Duroc)	 축진요크 - 추가 (Chookjin York)	 축진랜드 - 추가 (Chookjin Land)	 다산버크셔 - 추가 (Dasan Berkshire)
개	 진돗개 - 추가 (Jindo)	 동경이 - 추가 (Dongyeonggi)	 제주개 - 추가 (Jeju native dog)	 오리 청수오리 - 수정 (Cheongsu)	 말 제주마 - 수정 (Jeju horse)